



1. <Over the Continents> Material: Red wool, Shoes 2008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2008 Foto: Sunhi Mang



1



artist I

Chiharu Shiota

검은 실이 장악한 공간과 아우라

치하루 시오타의 작품을 실제로 처음 접한 것은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CITY-NET ASIA 2011>로, 하얀 이동식 침대와 그 주위를 사정없이 포위하고 있던 검은 선들은 공간을 엄청나게 장악함은 물론 죽음, 고립, 부재에 대한 강렬한 아우라를 뇌리에 남겼다. 그리고 약 1년 뒤 지난 9월 <ABC-아트 베를린 컨템포러리>에서 조우한 그의 설치와 드로잉은, 특유의 존재감과 함께 기억과 관여, 존재와 고립에 대한 또 다른 울림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만난 시오타는 자신의 의도에 대해 방점이 분명한, 확신에 찬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런 그와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이주희 객원기자 ● 사진 Chiharu Shiota 제공

1972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치하루 시오타는 교토 세이카대학과 베를린 미술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설치와 퍼포먼스, 드로잉을 넘나들며, 오페라와 무용극의 무대연출을 통해 전위적인 공간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오사카 국립미술관, 뉴욕 헌치오브베니스 등에서 열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모스크바 비엔날레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포함한 여러 국제전에 꾸준히 초청되어 왔다. 그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도쿄)과 호프만 컬렉션(베를린)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2006 광주비엔날레 및 <CITY-NET ASIA 2011>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1

치하루 시오타의 예술세계는 설치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진화해 왔으며, 무차별적으로 공간을 점령하는 검은 실은 그의 작품을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 바닥과 천장, 벽을 타고 촘촘히 엮어진 수많은 직선들은 작가 스스로 표현하듯 일종의 '영역표시' 입과 동시에 자기확신에 찬 언어로 공간을 수용하고 재정의하려는 선전포고이다. 팽팽하게 짜인 길고 짧은 실들은 그 가운데 속한 오브제를 방어하듯 에워싸며 검은색이 지나는 죽음의 강력한 연상 너머로 저편의 대상을 응시하게끔 이끈다.

작가는 2000년과 2004년도에 작업한 〈During Sleep〉을 통해 병원에서 수거한 침대를 그의 작업에 포함시킨 적이 있다. 시오타에게 침대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둘 다 일어나는 곳으로, 작가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행위, 즉 수면으로 나타내려 했던 것이다. 수면은 일시적인 의식의 부재 및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삶의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During Sleep〉의 전시기간 동안 작가는 정해진 시간마다 설치된 침대 중 하나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이는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의 모호한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동명의 2004년도 작품은 프랑스의 한 교회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오프닝 당시 총 30개의 침대에 30명의 참가자들이 수 분간 잠을 청하였다. 교

회라는 공간적 특성과 침대의 성스럽고 세속적인 상징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들 침대는 누군가 잠을 청했던 흔적과 부재의 상태로 전시기간 동안 공개되었다.

작가는 실제 누군가의 삶과 기억 속에서 밀착하여 기능했을,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일상의 물건을 모아 자신의 방식으로 박제하는데, 불타버린 피아노, 병상, 오래된 재봉틀, 구식 장난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오브제에 대한 동기와 취급 방식에는 작가 자신을 포함한 개인적 경험과 기억이 주된 기제로 작용한다. 2008년 작 〈In Silence〉에는 일반적인 독주회를 연상시키는 배열과는 대조적으로 더는 기능할 수 없는, 불에 탄 피아노와 의자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 이웃에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화마가 휩쓸고 간 가재도구 가운데 발견한 본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피아노를, 시각적인 경이와 충격은 물론 나무가 타들어 가던 소리와 냄새로써 기억한다. 이러한 전(全) 감각적인 기억은 경험에 대한 작가의 정서적 관여의 깊이를 반영하며, 이는 타인의 삶과 기억을 재현할 때도 드러난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제작된 〈Other Side〉, 〈Room of Memory〉, 〈His Chair〉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낡은 창문들은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위해 베를린의 옛 건물로부터 분리된 것



1. 〈Unconscious Anxiety〉 Material: Sewing machine, chair, black wool 2009 Shiseido Gallery, Tokyo Foto: Sunhi Mang
 2. 〈Memory of Skin〉 Material: Five dresses, dirt, showerd 2001 Yokohama International Triennale of Contemporary Art Foto: Sunhi Mang

2

들을 작가가 직접 수집한 것이다. 시오타는 창문을 선택한 동기와 관련해 통일 이전 시대에 참가 이편에서 서쪽을 바라보곤 했던 동독인들의 삶을 언급하였는데, 이때 그는 마치 창틀을 두 손으로 잡고 상체를 창 밖으로 쪽 빼는 듯한, 다소 연극적인 동작을 취하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삶에 대해 자신의 몸짓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그것이 재현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요소의 개입 없이 창문으로만 구성된 이들 작품에서, 수백 개의 창문들은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이루며, 요새의 한가운데 자리한 유일한 의자는 창문 너머 저편의 삶에 대한 응시와 상념,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기억을 담는다.

반복을 근간으로 하는 건축적 행위와 결과물은 시오타의 다른 작업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는 2010년 작인 〈Accumulation: Searching for Destination〉과 그 이듬해 작업한 〈Where We Come and What We are〉에서 수많은 여행용 가방을 주된 재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벽면을 따라 한켠에 쌓아올린 가방 '산'과 마주하는, 가방으로 구축된 '집'이 인상적이다. 시오타는 떠남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공간을 구축한 셈인데, 구축된 공간 속 드로잉과 소품은 떠나있는 자의 마음을 떠난 무언가, 즉 출신, 관계, 기억 등으로 회귀시킨다.

대화 도중 '기억' 만큼 시오타가 힘을 주어 사용한 어휘는 '존재'이다. 그는 버려지거나 관심에서 떨어진 사물에 담긴 삶을 조명함으로써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낀다고 말한다. 시오타는 두 차례에 걸쳐 신발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2008년 작 〈Traces of Life〉는 다수의 신발을 빨간 끈에 연결하여 베를린 시내 한 건물의 외벽에 설치한 것이다. 그 건물 내 한 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듯 연출된 장면은, 마치 그 집에 살면서 걸어나갔던 모든 이들의 존재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듬해 작업한 〈Over the Continents〉에서는 광고를 통해 모집한 2,000켤레의 신발을 동봉되어 온 사연과 함께 전시하였는데, 작가는 그 사연 중 상당수를 수년이 지난 지금도 비교적 소상히 구두적으로 재현한다. 두 작품



1



2



3



4

에 등장하는 모든 신발에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귀결되는 빨간 끈이 한 개씩 매어져 있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역동성과, 벗어날 수 없음의 정적한 계가 긴장을 유발한다.

치하루 시오타의 작품세계에서 이토록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누군가의 현존에 있어서 이들의 흔적을 절대 씻어낼 수 없다는 강한 선형적 인식이 작가에게 내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고국을 떠나 재독 작가로 활동해온 그를 일각에서는 재독 일본작가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 여성작가 혹은 베를린거주 작가 등으로 규정해 왔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배경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게 조여온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시오타는 가족적 배경, 인간관계, 국민적 정체성, 종교와 같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깃들어 벗겨 낼 수 없는 여러 측면을 'second skin' 라 명하고 여러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1999년도에 작가는 〈Bathroom〉이라는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진흙으로 채워진 욕조에 앉아 자신의 신체에 붓는 의식을 행한 적이 있다.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머리카락과 피부 곳곳에 침투한 흙은 아무리 애써도 완벽히 씻어낼 수 없는 무언가, 즉

'second skin' 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매체로 하는 이러한 실험은 그가 직접 제작한 드레스를 'second skin' 으로서 사용함에 따라 더욱 정형화된 설치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2001년과 2008년에 제작된 〈Memory of Skin〉에는 흙으로 물들인 여러 벌의 대형 드레스가 걸려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드레스 상단에 샤워 장치를 설치, 씻어내고자 하는 시도와 그것의 무의미함을 나타내었다.

올해 그가 마루가메 게니치로-이노쿠마 현대미술관에서 가졌던 개인전 〈Where Are We Going?〉은 진화 중인 그의 예술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제시한다. 일찍이 〈Where Are You From?〉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거, 기억, 존재에 대한 질문에 신체적 행위로 맞서던 그는, 약 10여 년 뒤 질문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배와 점차 붉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흰색 드레스, 그리고 붉은 실로 군데군데 꿰매어진 옛 사진들을 나열한다. 자신이 창조한 장엄하고 정교한 예술적 표상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작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에게, 이 세계는 결국 떼어낼 수 없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끊임없는 침투로 이루어진 것이며, '너'로서 와서 '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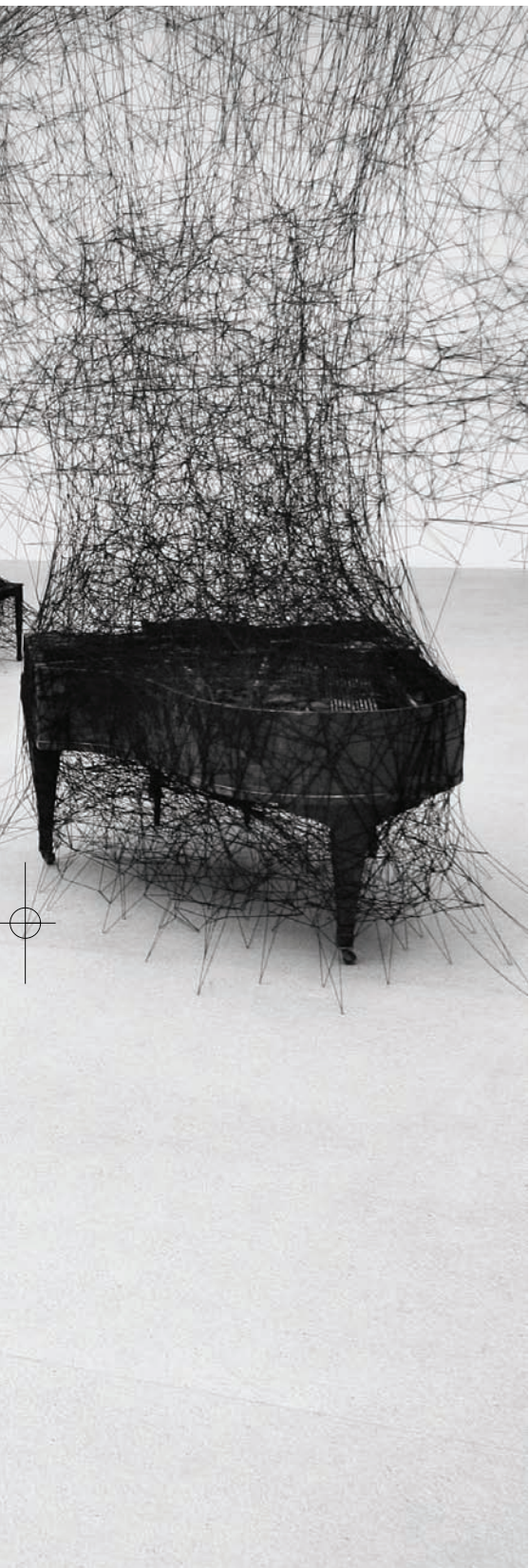
1. 〈Room of Memory〉 Material: Old wooden windows 2009 21st sent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Foto: Sunhi Mang 2. 〈From Where We Come and What We are〉 Material: Circa 400 suitcases 2011 La maison rouge, Paris Foto: Sunhi Mang 3. 〈Dialogue with Absence〉 Material: Pumps, tripods, dress, tubes, colored electrical cables, glass, red liquid 2010 Aichi Triennale 2010, Nagoya Foto: Sunhi Mang 4. 〈During Sleep〉 Performance with thirty sleepers during the opening. Black wool, beds 2004 Saint Marie-Madeleine, Lille Foto: Sunhi Mang



〈In Silence〉 Material: Black wool, Burnt grand piano, burnt chairs 2008 Center
PasquArt, Biele/Bienne Foto: Sunhi Mang

The Aura of Memories

• Article by **Lee, Ju-Hee** Assitant Editor • Photo Courtesy of **Chiharu Shiota**



One of the signature elements of Chiharu Shiota's magnificent installations is the indiscriminately occupying black yarn woven across and along the space. Surrounding objects in a rather defensive way, the tautly woven interior works in marking, as the artist says, 'territories', or as self-confident declarations of accepting and redefining the space.

For 'During Sleep', which was staged several times in different settings between 2000 and 2008, Shiota centred beds in the midst of her webbed space, which she thinks of as a place where both birth and death take place. Sleep, as a state of being alive and dead at the same time, is indeed linked to both life and death because it accompanies temporal absence of consciousness and thus disconnection from the world. As we awake, death dies and life is brought back to life. While 'During Sleep' was on display at the Haus der Kulturen der Welt in 2000, Shiota slept in one of the beds at appointed times, and left with no trace or memory of her presence. When she was gone, the bed was left with traces of her transient stay implying a presence in the past, yet currently absent.

Her interest in the 'state of being', also the title of one of her works, has been reflected in many other works of hers, and sometimes has been achieved by putting objects together that are likely to have functioned in one's life and memory, such as a piano, hospital beds and sewing machines. An individual's experience and memory contained in the object engages itself with the way that Shiota articulates the work by 'taxidermising' them into the woven space. When she was young, Shiota experienced a fire in her neighbourhood, and she recalls her fascination with a burned piano found in the remains as an aural and olfactory experience as well as a visually striking scene. In her work 'In Silence' (2008), a burned piano and chairs were arrayed in a setting of a recital where the solemn music of silence was being played. The dense net of black yarn entwined up and around the piano and the audience as if representing flames rising, intensifying the traumatic experience of loss

and its peculiar pleasure.

A sense of existence is achieved when absence is stressed. During our conversation, Shiota repeatedly used the word 'existence' as she did 'memory' or 'absence'. She said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my works I feel the existence of people that I have never met before." For 'Trace of Life' (2008) Shiota collected and displayed shoes on the exterior of a building in Berlin using red thread, which vertically linked a spot on the top to each shoe. All the shoes shared one starting point, a bar sticking outside a window of a flat in the upper floors the building, but proceeded in their own direction as they faced the ground. In this way Shiota recalled all the previous residents who had ever lived in and walked away from the flat where the shoes were hanging from.

Memory and experience are so central in her oeuvre, on the premise of the recognition that one can never erase or run away from what he has been and where he has belonged to. Shiota collected a number of suitcases and incorporated them into her works including 'Where We Come and What We Are' (2008). On a side of the work was a pile of suitcases stacked like a mountain; on the other side facing the stacks was a frame of a house, a place to stay, constructed from suitcases, in other words, a symbol of leaving. In a suitcase in the house, there were a telephone and a drawing of two people connected by a red thread. After all, leaving is building a house of memory in one's own heart and lingering thereafter.

In her recent work 'Where Are We Going?' (2012) Shiota fixed two wooden boats and let water constantly fall upon and around them. These boats were too old and had many traces of the past, but the cracks and holes in them allowed the boats to stand by letting the water pass through them. We do not know where we are going in our boundless expanse of life, but with the traces of our past and memory deeply inscribed in us, we can stand on it and go as we are. ■■■